

LG화학, PVC창호 유해성 강경대응

난연성 강하고 발화온도 섭씨 454도 ... 알루미늄 창호와 공방 가능성

발코니 확장 허가로 창호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루미늄창호기업들이 PVC(Polyvinyl Chloride) 창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해당기업들이 법정소송 등 강경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알루미늄 창호 메이커들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PVC 창호는 화재 때 살인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베란다 창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PVC창호를 베란다 창으로 허용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등 PVC창호 메이커들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허위 비방광고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은 “PVC 창호는 난연성이 강하고 자기 소화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화온도가 454℃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으며 화재의 확산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PVC 연소 때 유독가스가 발생하지만 외부와의 압력차이 때문에 대부분 실외로 빠져나가며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의 목재를 대체하고 있어 매년 경상남도 면적 정도의 삼림훼손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PVC창호 사용비율이 대개 45-65%로 알루미늄 창호(20-30%)보다 월등히 높으며, 단열, 기밀, 방음, 부식방지 기능면에서도 PVC가 알루미늄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다른 PVC 메이커들과 공조해 알루미늄기업들의 허위광고에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광고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대응광고 게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1/10>